

2018년 대학입시전형 결과보고서

#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요 내용

염창권(입학본부장), 조환채(입학관리팀장),  
김현아·김아영(채용입학사정관)

2019. 02.



광 주 교 육 대 학 교



## 연구결과의 요약

2019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수시와 정시 면접고사에 응한 지원자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 및 국가 주요 시책을 검토하고, 2019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수시 및 정시 면접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나타난 응답 내용을 1차 데이터로 하여 Pc-SPSS 22.0 Version을 사용해서 통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질문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전체의 약 47.9%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고사가 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약 43%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통 이상이 9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의 약 63.7%는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의 내용이 교과지식형 질문이 아니라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을 포함하면 긍정평가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수시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80%로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성과 적성이 약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와 상식이나 교과풀이형 질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시의 경우 시사와 상식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성과 적성(28.9%), 교직소양(17.4%)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한( $p<.01$ )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형 유형에 따른 차이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가 고교교과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지원자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질문의 내용 구성면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주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스스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경우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하기 ‘어려웠다’의 경우도 2%로 98%의 학생들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원자는 58.4%이고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누적 평균은 84.8%로 지원자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15% 정도의 지원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가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중, 긍정 응답이 47.9%~80.6%의 범주에 속하고 보통 이상이 84%~98%의 범주 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대학의 면접전형은 선행학습을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면접고사 체계를 기본 틀로 유지하고, 몇 가지 유의한 경우를 보완한다면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방지하여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II.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및 국가적 정책 .....	3
1. 선행학습의 개념 및 유발 요인 .....	3
2. 국가적 정책 .....	7
III. 광주교육대학교의 선행학습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 노력 9	
1. 우리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선행 연구 .....	9
2. 우리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 전형 .....	12
3. 우리 대학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 .....	14
IV. 설문 분석 및 논의 .....	17
1.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	17
2.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결과 분석 .....	23
3. 질문 영역에 대한 결과 분석 .....	25
4.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 결과 분석 .....	28
5.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 결과 분석 .....	30
6.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결과 분석 .....	32
7. 분석 결과의 종합 .....	34
V. 결론 및 제언 .....	41
1. 결론 .....	41
2. 제언 .....	43
■ 참고문헌 .....	45
■ 부록 .....	47

## 표 목 차

〈표 II-1〉 선행학습의 범위 설정을 위한 준거 및 기준 .....	3
〈표 II-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이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	5
〈표 III-1〉 수시모집 전형 유형 및 면접 비중 .....	13
〈표 III-2〉 정시모집 전형 요소 및 면접 비중 .....	13
〈표 III-3〉 선행학습영향평가 운영위원 명단 .....	14
〈표 III-4〉 선행학습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15
〈표 III-5〉 2019학년도 입시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 일정 .....	15
〈표 IV-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18
〈표 IV-2〉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19
〈표 IV-3〉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20
〈표 IV-4〉 수시에서 지원 전형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21
〈표 IV-5〉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23
〈표 IV-6〉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24
〈표 IV-7〉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고사의 영역에 대한 평가 .....	26
〈표 IV-8〉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	27
〈표 IV-9〉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28
〈표 IV-10〉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29
〈표 IV-1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30
〈표 IV-12〉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31
〈표 IV-13〉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32
〈표 IV-14〉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33
〈표 IV-15〉 2017/2018/2019학년도 : 면접 질문 난이도 .....	36
〈표 IV-16〉 2017/2018/2019학년도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 .....	37
〈표 IV-17〉 2017/2018/2019학년도 :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	38

## 그림 목 차

〈그림 III-1〉 대학입학전형 업무 추진 기구표 .....	12
〈그림 IV-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18
〈그림 IV-2〉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19
〈그림 IV-3〉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20
〈그림 IV-4〉 수시에서 지원 전형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21
〈그림 IV-5〉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23
〈그림 IV-6〉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24
〈그림 IV-7〉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고사의 영역에 대한 평가 .....	26
〈그림 IV-8〉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	27
〈그림 IV-9〉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28
〈그림 IV-10〉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29
〈그림 IV-1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30
〈그림 IV-12〉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31
〈그림 IV-13〉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32
〈그림 IV-14〉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33

## 부 록 목 차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 .....	47
2.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지 .....	49
3. 2019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예시 .....	50
4.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공통 문항 .....	51
5.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문항카드 .....	52
6. 2019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정시 면접문항 검토의견 .....	56
7.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 평가표(일반전형) .....	5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선행학습으로 인한 인재상의 왜곡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교육정책에 의해 마련된 교육과정(국가, 시·도, 학교 수준)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14: 12-13 참조). 선행학습이 논란이 된 것은 과도한 속진 학습으로 인한 내신 경쟁과 이를 부추기는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입시 출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 진학지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속진 학습은 내신 경쟁이나 대입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기 위한 방편일 뿐,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신 관리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은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학교교육은 내신관리 등의 학생부 기재를 통한 학력 인정기관의 역할로 전락하기 직전이었다. 통계청(2018.3.15)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29.5%로, 70% 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6천억원(2015년 17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저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수동적 인재 양성,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및 소외계층 학생의 방치, 가정경제의 피폐와 같은 다수의 교육문제를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건전한 소비경제의 위축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경제의 선순환에도 역기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덕 외(2016: 26)에 의하면 “2015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5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 27만1천원(고등학교 28만4천원, 일반고 33만원)”(통계청 2018.3.15)으로 나타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액 면에서 증가한 것과 일반교과 사교육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높아 보인다. 이는 국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선호 학교 집중 및 학벌주의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시스템 전반과의 영향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추월하고 있으며, 미래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생산적 기반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대입전형의 기본 설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직업군이 퇴출되고 새로운 직업군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비해

공교육의 교과 편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교육의 역할 범위 내에서, 교과 내용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내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직업군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수 역량을 가진 평생 학습자를 양성해야 하며,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역량 중심의 인재 양성에 학교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입 전형을 통한 인재 선발에서도 지식의 확대보다는 기본 지식의 활용 능력과 학교생활의 충실도와 사회적 관계 능력 등에 평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8학년도에 실시한 광주교육대학교 수시 및 정시 대입전형 중 면접 전형을 연구범주로 한다. 방법적으로는, 설문을 통해 면접전형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응답을 수집하고, 이를 1차적인 기초 자료로 삼아 면접전형의 실행 내용과 결과 간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전형이 미치는 선행학습과의 영향관계를 분석, 해석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은, 여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수시 면접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타당도 높은 수시 면접용 질문과 질문 제시방법을 개발하여 위촉사정관 및 전형위원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정시 면접전형에서도 교육과정의 범주 내에서 활용형 문항을 개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의 수준이 높은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Ⅱ.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및 국가적 정책

### 1. 선행학습의 개념 및 유발 요인

#### 가. 선행학습의 개념

앞에서도 언급한 바,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교육정책에 의해 마련된 교육과정(국가, 시·도, 학교 수준)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14: 12-13 참조). 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은, 선행학습에도 다양한 상황이 개입되어 개념 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연구인 이종태 외(2002)에서는, 선행의 기준을 1개월로 설정하여 학교 교육과정보다 한 달 이상 먼저 배울 경우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지속 기간 면에서 ‘단기선행’과 ‘장기선행’으로 구분하여, 단기선행은 1~3개월 정도 앞서 선행하는 경우를, 장기선행은 4개월 이상 앞서 선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김현철·윤유진(2011)은 선행학습의 범위를 공교육에까지 확대시켜, 학습자와 학부모가 선행학습을 계획해야 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1개월을 기준으로 선행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한 이재덕 외(2018)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행학습의 범주를 정하고 별도로 표를 만들어 이를 명시화하고 있다.(이재덕 외, 2018: 27-28)

‘사교육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보다 1개월 이상 먼저 학습’하는 것을 지칭하며, ‘공교육 선행학습’은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한 학기 앞서 학교가 제공한 선행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규정은 선행학습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고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말아야 하는 학습 방식은 선행학습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수업에 맞춰서 그 전 학기에 학습한 경우로 한정해야 분명하게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학습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증거와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Ⅱ-1. 선행학습의 범위 설정을 위한 증거 및 기준

증거	기준	비고
선행 정도	1학기 이상 앞서 하는 학습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2학기나 겨울방학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공부를 하는 경우
선행 유형	과외, 학원수강,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강좌	방문학습지는 과외에 포함하되 EBS 및 방과 후 학교는 제외
선행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비주지 교과는 제외
선행 기간	1달 이상 지속적으로 학습	간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제외
비용	유료로 하는 학습	가족의 도움, EBS 수강 등 무료로 하는 경우는 제외

위의 연구는, ‘선행학습 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맞추어져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 과목’ 면에서 ‘교과 내신’ 및 ‘수능’ 대비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과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행학습의 범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수행할 때, 교육과정의 범주 내에서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밖 사교육 통해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이나, 학교 내의 비정상적인 교과 운영을 통한 선행학습 모두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다.

이와는 역방향에 있는 우리 대학 입시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종합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선행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대학의 전형요소는 일선학교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요구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 선행학습 유발 요인

김현철·윤유진(2012: 11~12, 52~54)의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에 실시한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 과목 간 불일치’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불일치’가 선행학습 사교육의 원인에 포함되고, 선행학습의 주요 요인은 ‘수능시험 대비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와 교육과정 개설의 괴리’,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수리논술시험의 불일치’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선행학습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각 교과에서 모두 ‘성적향상, 내신관리 등을 위한 학교수업 보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영어와 수학의 경우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과학과 국어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2012: 56)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다음 <표Ⅱ-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Ⅱ-2.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말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선행학습 유발요인	내용	비고
정책 및 제도 요인	지나치게 어려운 학교 시험	개별 학교 수준의 정책 및 제도 요인
	개별 학교의 속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	
	양과 난이도가 높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부 수준의 정책 및 제도 요인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 제도와 대입 반영 방식	
	상대평가 내신제도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	수요자의 경쟁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선행학습 수요를 조장하는 마케팅	-
수요자의 인식	경쟁과 불안 심리 등	-

선행학습의 유발 인자는 당연히 대학 측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비해, 선호하는 대학의 입학생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행학습이 야기된다.

앞에서 열거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대학 측에서 선행학습의 발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불일치’,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고사와 대입전형’, ‘점수 위주의 높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 제도와 대입 반영 방식’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고,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해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리 대학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면접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면접전형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면접 질문 자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문항 구성의 난이도가 높아 질문에 대한 별도의 학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둘째, 면접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탈하여 별도의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셋째, 높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복합적 사고력과 순발력을 요구함으로써 면접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2. 국가적 정책

### 가. 논의의 추이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는 선행학습 기반의 사교육 시장의 확대 양상에 주목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주력하여 왔다.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 등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시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9.25.). 이는 사교육이 2013년 41.2%, 2014년 43.3%, 2015년 4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통계청 보도자료, 2014, 2016)을 나타냄으로써, 사교육이 전반적으로 입시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변질되었고 이는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학교에 등교해서 잠을 자고 하교 후에는 학원에 출석하는 등의 기형적인 교육현상이 나타났으며, 공교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학생 발달 면에서도 경쟁보다는 학습과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시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4년 2월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 정상화법)을 통과시켰으며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2016년 12월 20일 개정되어 최종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6)

### 나.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규제하는 주요내용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시행되는 주요사항을 보자면 “학교에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며, 선행학습의 근원이 되는 학원의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시전형의 출제 내용이나 방법 등이 정규교육과정과 다르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선행학습을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하여 선행학습을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대학의 입시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행학습 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공교육정상화법」 중에서,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 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 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 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 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대학이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우리 대학도 여기에 제시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첫째는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해야 하며, 둘째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III. 광주교육대학교의 선행학습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 노력

#### 1. 우리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선행 연구

우리 대학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선행학습,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9년 동안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적층시켜왔고, 나름의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교육을 선도하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역할을 다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는 본 대학의 입시정책에 반영되어 일선 학교에 예측 가능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왔다.

- ① 황윤한(2010a),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연구」, 2010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 ② 황윤한(2010b), 「교육감추천입학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한국교원교육학회, pp. 165~189.
- ③ 임성규(2011), 「대학 내신과 임용시험 성적의 상관관계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 ④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2012),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전형 연구」, 2011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⑤ 최도성·강효영·조환채(2012),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전형 연구」, 2011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⑥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2013),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보고서.
- ⑦ 임성규·김정량·김인수·조환채(2013),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 연구」 2014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⑧ 임성규·김용조(2015),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4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⑨ 오익수·노희정·조환채(2016),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5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⑩ 임성규·선주원·신동광(2017),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요내용」, 2016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⑪ 문병찬·김선구·정혜린·김다래(2018),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7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위의 연구 중에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인 2015학년도 입시전형에 나타난 결과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임성규·김용조(2015)는 문헌연구와 설문지 분석을 통해 선행학습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4학년도에는 면접문항을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책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인용하여 출제하였다. 이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가를 판단

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었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 학년도인 2015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개인 맞춤형 면접고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익수·노희정·조환채(2016)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광주교육대학교의 대입전형, 특히 면접고사가 선행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2016학년도 수시/정시 면접 설문 분석을 기초로 2015학년도 면접 설문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수시/정시 면접 대상자의 심층면접 자료를 참고로 분석하였다. 2016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의 수시 및 정시 면접고사를 치룬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접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별도의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나아가 광주교육대학교의 면접고사는 공교육 외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학습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의성 신장 교육에 기여할 것 같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의 금지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과제 시행 시기 조정이다. 즉,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를 대입전형 계획을 수립하는 4월부터 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제진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와 외부전문가 활용이다. 면접평가와 서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고사 출제진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출제 및 문항 검토 과정에 전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나 교육과정 전문가(장학사 혹은 연구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면접내용과 관련하여 대학 입학 후 본격적으로 학습할 초등교육 관련된 내용 요소는 면접에서 가급적 제외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문화 교육 및 수업’과 ‘초등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지도 방법’등의 질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임성규·선주원·신동광(2017)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학생부종합 전형의 수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설문조사는 2017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전형 중 면접에 응시한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의 맞춤형 면접 문항 개발, 정시에서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한 면접 문항의 출제로 선행학습 필요성이나 공교육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시 질문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16학년도에 비하여 2017학년도 수시 및 정시 면접의 질문 난이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묻는 것보다는 사고의 다양성과 말하기의 논리성에 초점을 맞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면접 문항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면접 문항은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수험생들이 시사,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

가 있다. 셋째, 쉬운 문항을 먼저 제시하고 어려운 문항은 나중에 제시하도록 한다. 어려운 문항이 제시되었다면 가능한 질문 순서에서 뒤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문병찬 외, 2018: 8-9 참조)

문병찬·김선구·정혜린·김다례(2018)의 최근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고 있는데, 안상진(2013)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과 같이 교육의 3주체가 인식하는 요인과 함께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야기되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본 대학과 타 교육대학의 면접전형의 세부사항을 비교하여 면접 전형의 위치와 역할 설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수시 86.9%, 정시 83.7%의 응시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위 결과는 2017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동일한 질문에 나타난 결과, 80.3%와 78.9%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아진 것으로서, 광주교육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면접문항이 선행학습영향력 감소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8년도 광주교육대학교의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면접고사의 형식과 내용은 응시자들에게 선행학습과의 관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면접고사 체계를 기본 틀로 유지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다만 제언에서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류기반으로 서류내용에 대한 확인과 인성 그리고 전공적합성, 학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시 면접에서 서류에 나타난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면접고사의 결과는 정시에 비해 합격여부에 영향력이 높으므로 평가의 도구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세밀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문병찬 외, 2018: 40-41)와 같다. 직전의 연구라 볼 수 있는 이 연구의 제언을 참조하면, 수시 면접 안내 질문의 상세화, 구체화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는 서류전형을 담당한 사정관 교육에 반영되어 면접 유도 질문을 구체화함으로써 면접관 질문의 타당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은 수시에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면접전형의 유지와, 정시에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 정시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광주교육대학교의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면접고사의 형식과 내용은 지원자들에게 선행학습과의 관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초의 유지가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확인해 볼 것이며, 사회적·교육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이다.

## 2. 우리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 전형

광주교육대학교의 대학 입학전형 업무 추진 기구표는 <그림Ⅲ-1>과 같다. ‘입학사정관 운영위원회’→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시관리위원회’의 순서로 입시정책 검토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핵심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교수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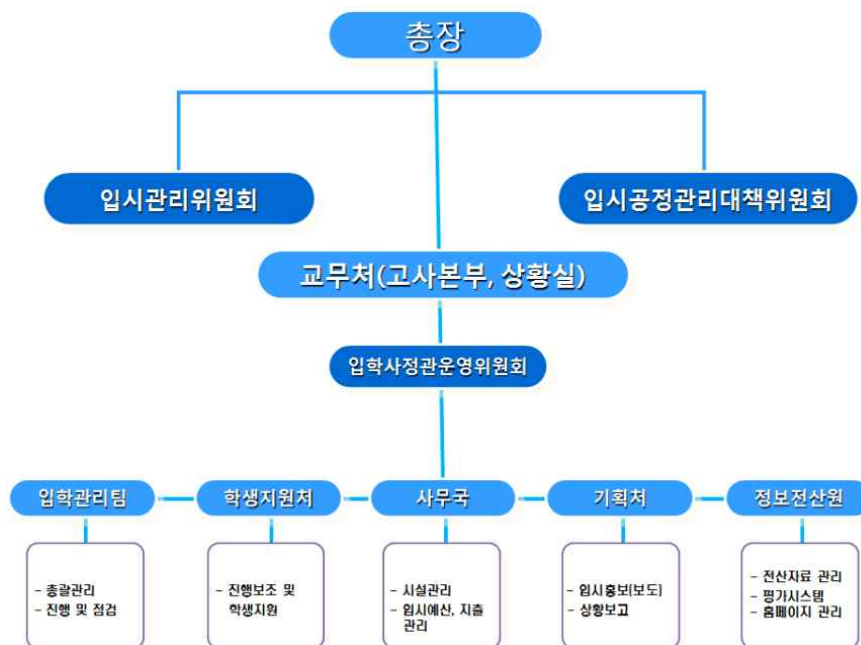


그림 Ⅲ-1. 대학입학전형 업무 추진 기구표

광주교육대학교의 2019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형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면접에 응한 1차 합격자 전원에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Ⅲ-1. 수시모집 전형 유형 및 면접 비중

전형유형	전형명		1단계(1,000점) 〈선발비율(300%)〉	2단계(1,000점)	수능최저 및 응시제한
학생부위주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		서류평가 100% 1,000점  (기본점수 900점 + 실질반영점수100점)	1단계 점수 50% 500점 + 심층면접 50% 500점 (기본점수 400점 + 실질반영점수 100점)	없음
	지역 인재	전라남도학교장추천			
		광주·전남인재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대상자(정원외)				
	농·어촌학생(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표Ⅲ-2. 정시모집 전형 요소 및 면접 비중

구분	1단계(1,000점) <선발비율(200%)>	2단계(1,000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90% (90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 (100점)	1단계 점수 90% (900점) + 면접 10% (100점)

### 3. 우리 대학의 공교육 정상화 노력

####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광주교육대학교는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에 의거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절차를 규정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부록 1 참조: 광주교육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관련), 이 지침에 따라 본교의 입학전형(대학별고사)이 선행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분석하여 차년도 입학전형, 예를 들면 평가의 방법, 절차,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위원회 조직 구성

광주교육대학교의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입학본부장, 교수입학사정관, 입학관리팀장, 채용사정관(5명), 외부위원(장학사, 교사 및 학부모 포함 7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표Ⅲ-3.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위원 명단

직책	성명	비고
위원장	염○○	입학본부장
부위원장	김○○	교수입학사정관
내부위원	조○○	입학관리팀장
	정○○, 김○○, 양○○, 김○○, 이○○	채용입학사정관
외부위원	김○○, 조○○	장학사
	임○○, 장○○	교사
	김○○, 오○○, 박○○	교사자문단 소속 학부모 추천

####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진행 절차

광주교육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2014.12.09.)’을 준수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와 함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관리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Ⅲ-4.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여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예정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0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0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0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0
		⑥ 현직 교교교사 포함 여부	0

표Ⅲ-5. 2019학년도 입시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년 월 일	세부내용
2018.07.24.(화)	2018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1차) 개최
2018.11.05.(월)	2019학년도 대입전형 준비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준비
2018.11.24.(토)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2019.01.19.(토)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
2019.01.21.(월)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지 코딩 작업
2019.02.12.(화)	2018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위원회(2차) 개최
2019.02. ~ 03.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차년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 2019.03.31.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차년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 2019.04.30.	차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필요시)

## 라.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1) 출제 전

-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 출제 및 검토위원 사전교육 진행
- 고교 교육과정 분석, 고교 교과서 수집 및 분석, 출제·검토위원 사전 연수 진행
- 면접 위원 사전교육을 통하여 면접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면접위원이 지식 위주의 평가가 아닌 초등교사에 적합한 적성과 인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안내함.

### 2) 출제 과정

-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 면접 출제의도 및 평가내용 안내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질문을 하도록 안내

### 3) 출제 후

- 입학생을 대상으로 출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확인
- 정시 면접대상자 설문 후 전년도 비교 등 변화 추이 작성



#### IV. 설문 분석 및 논의

## 1.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본격적인 면접고사에 대한 설문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초 조사를 통해, 각 문항이 갖는 분석의 요구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위치와 상황에 따른 응답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응답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광역(특별)시                      ② 시                      ③ 읍·면
2. 응답자의 고교 유형은?  
① 일반고(자사고, 자공고 포함)    ② 특성화고  
③ 특목고(외고, 과학고 등)        ④ 기타(검정고시, 대안고 등)
3. 응답자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응답자의 지원 전형은?  
① 교직적성우수자                  ② 전라남도학교장추천  
③ 광주·전남 인재                  ④ 특별전형(그 외 전형)  
※ 특별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질문 난이도 평가

도입 설문으로 전체 면접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1.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답하기 쉬웠나요?”와 같이 응시자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를 판별하고자 제공된 것으로, 응답자의 유형에 따라 설문에 답한 것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수시와 정시 학생의 면접고사에 대한 난이도의 체감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Ⅳ-1>과 같다.

표Ⅳ-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2 (0.4)	35 (7.1)	195 (39.4)	226 (45.7)	37 (7.5)	495 (72.3)
정시	1 (0.5)	22 (11.6)	102 (52.7)	59 (31.1)	6 (3.2)	190 (27.7)
전체	3 (0.4)	57 (8.3)	297 (43.4)	285 (41.6)	43 (6.3)	685 (100)

$$\chi^2(4) = 20.98, p < .01$$

<표Ⅳ-1>에 의하면 전체의 약 47.9%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고사가 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약 43%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8.7%에 불과하고 있어 면접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수시와 정시 지원자 간 비교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p < .01$ ) 차이를 보였다. 즉, 수시학생의 긍정평가는 53.2%인 반면 정시 지원자의 경우 긍정평가가 34.3%로 수시학생이 정시학생보다 높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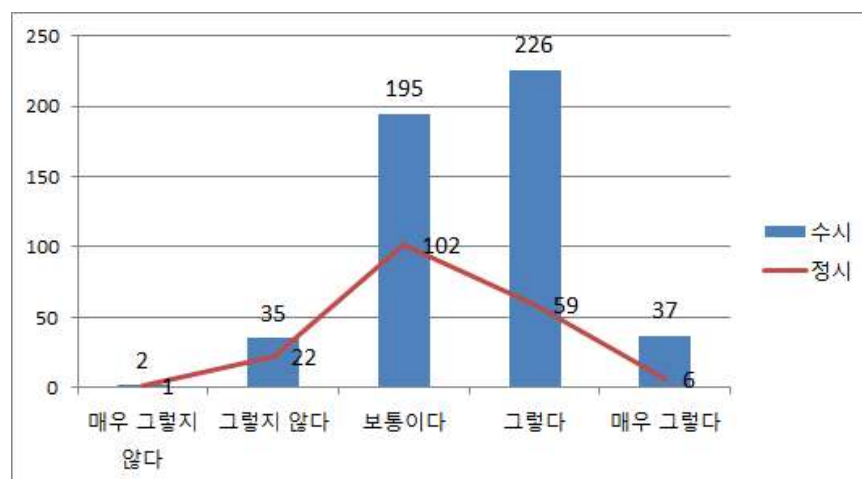


그림 IV-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2>와 같다.

표IV-2.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1 (0.4)	21 (8.0)	114 (43.2)	110 (41.7)	18 (6.8)	264 (38.5)
여	2 (0.5)	36 (8.6)	183 (43.5)	175 (41.6)	24 (5.9)	421 (61.5)
전체	3 (0.4)	57 (8.3)	297 (43.4)	285 (41.6)	43 (6.3)	685 (100)

$$\chi^2 (4) = 0.31, p > .05$$

<표IV-2>에 의하면 지원자의 성별 경향성은 <표IV-1>에서 제시된 전체의 경향성에 차이가 없다. 즉, 긍정평가가 전체의 약 4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 간 비교에서 집단 간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은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고사의 난이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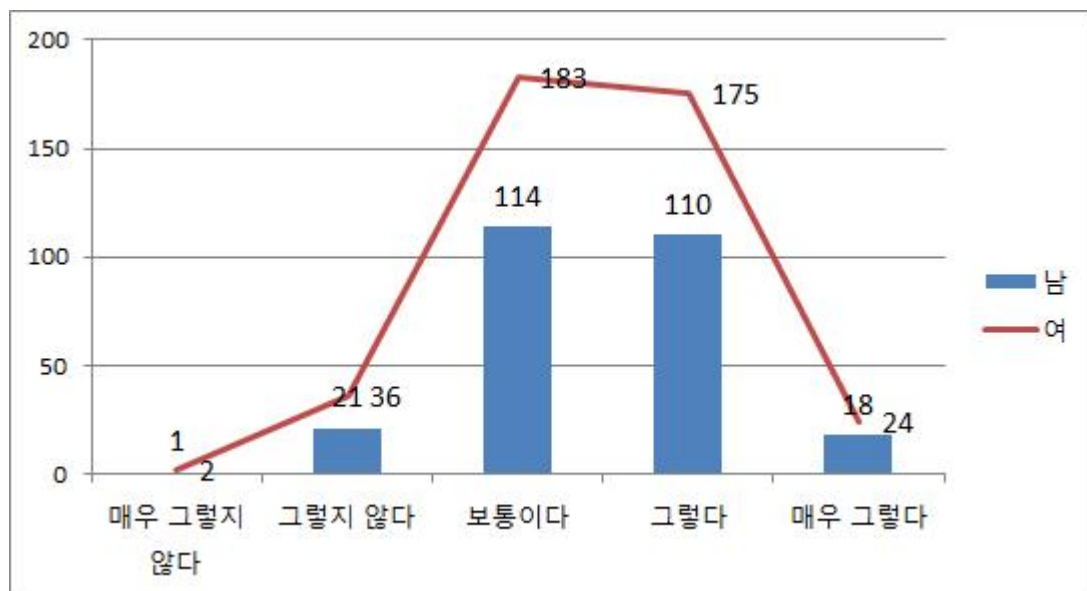


그림 IV-2.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다. 고교유형별 출신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한 고교유형별 출신 학교에 따른 면접고사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3>과 같다.

표IV-3.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일반고	3 (0.4)	55 (8.2)	290 (43.5)	277 (41.5)	42 (6.3)	667 (97.5)
특성화고	0 (0)	1 (33.3)	1 (33.3)	1 (33.3)	0 (0)	3 (0.4)
특목고	0 (0)	1 (12.5)	3 (37.5)	4 (52.0)	0 (0)	8 (1.2)
기타	0 (0)	0 (0)	2 (33.3)	3 (50.0)	1 (16.7)	6 (0.9)
전체	3 (0.4)	57 (8.3)	297 (43.4)	285 (41.6)	43 (6.3)	685 (100)

$$\chi^2(12) = 5.27, p > .01$$

<표IV-3>에 의하면 특성화고, 특목고를 포함한 기타 지원자의 인원이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의 면접에 대한 평가는 전체의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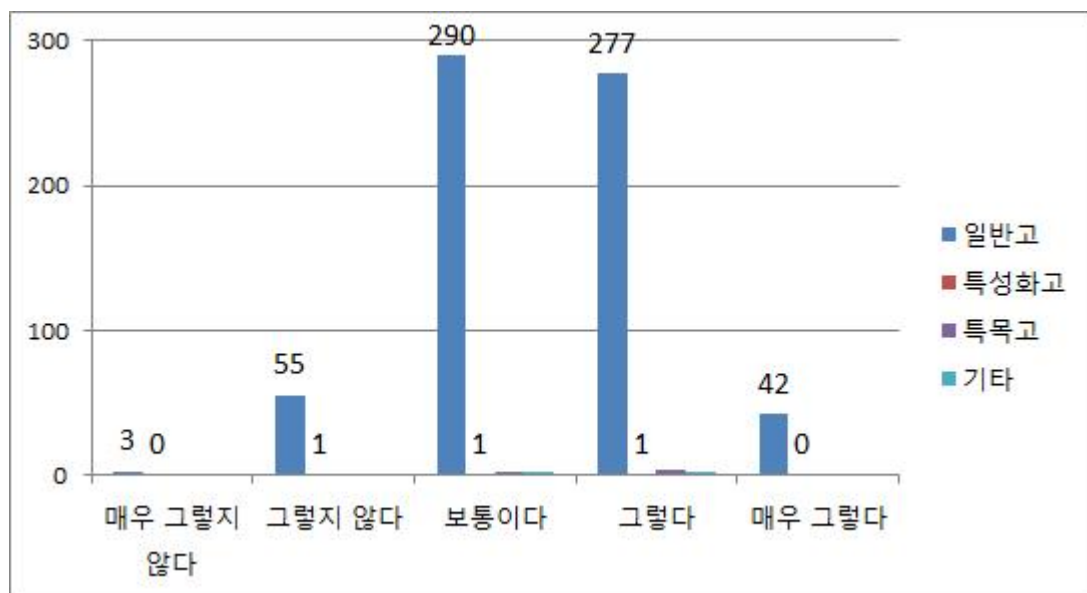


그림 IV-3.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의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 라. 수사에서 지원전형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수시 전형에서 전형 유형별로 집단 간 면접고사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Ⅳ-4>와 같다.

표Ⅳ-4. 수사에서 지원 전형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직적성 우수자	1 (0.4)	25 (9.3)	100 (37.3)	124 (46.3)	18 (6.7)	268 (39.1)
전라남도 학교장추천	0 (0)	4 (4.0)	40 (40.0)	47 (47.0)	9 (9.0)	100 (14.6)
광주·전남 인재전형	0 (0)	2 (3.7)	26 (48.1)	22 (40.7)	4 (7.4)	54 (7.9)
특별전형	1 (1.4)	4 (5.5)	29 (39.7)	33 (45.2)	6 (8.2)	73 (10.7)
전체	2 (0.4)	35 (7.1)	195 (39.4)	226 (45.7)	37 (7.5)	495 (100)

$$\chi^2(12) = 8.98, p > .05$$

<표Ⅳ-4>는 수시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입학지원전형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전형에 따른 반응에는 전체의 흐름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 우리 대학의 면접 전형의 질문 난이도는, 수시와 정시, 성별, 고교 출신, 지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동등한 수준에서 난이도를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이 지원자가 위치한 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영향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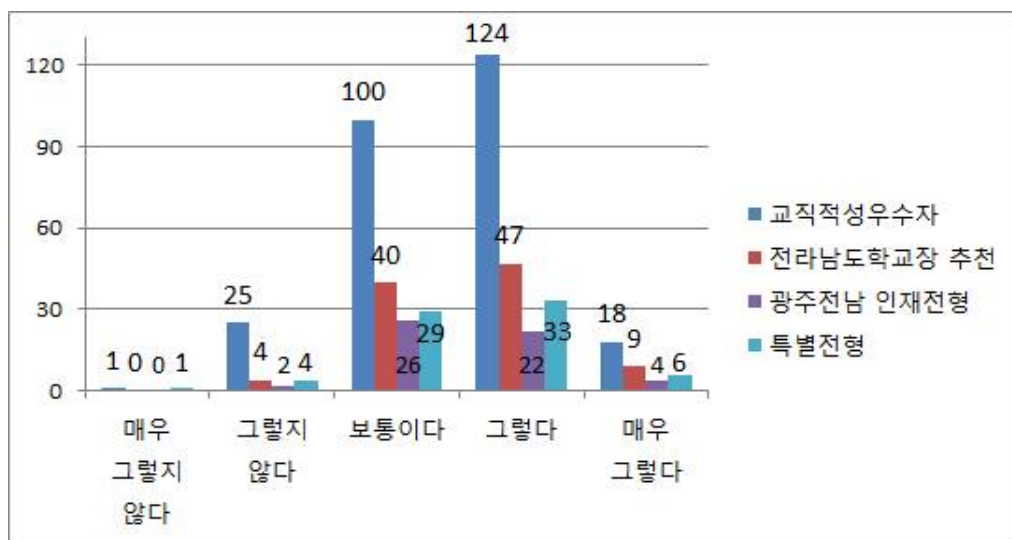


그림 Ⅳ-4. 수사에서 지원 전형에 따른 면접 질문 난이도 평가

이에 따라, 전체 및 이후의 문항 분석에서는 수시와 정시, 그리고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상관성만을 고려하여 질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입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① 수시와 정시가 입시 전형의 방식을 달리한다는 점과 ② 성별에 따른 최소 합격자 비율을 산정하는 전형 유형(교직적성우수자, 정시전형)이 있다는 점에서 입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 2.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결과 분석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이 설문은 “2. 면접고사 질문(내용) 중 교과지식형(풀이형) 질문이 있었나요?”와 같이 교과지식의 학습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는 교직 적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활용형 면접이라기보다는 교과지식의 단순암기나 선행학습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요소이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수시와 정시 학생의 면접고사 질문에 교과지식형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5>와 같다.

표IV-5.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115 (23.2)	232 (46.9)	98 (19.8)	48 (9.7)	2 (0.4)	495 (72.3)
정시	34 (17.9)	96 (50.5)	43 (22.6)	16 (8.4)	1 (0.5)	190 (27.7)
전체	149 (21.8)	328 (41.9)	141 (20.6)	64 (9.3)	3 (0.4)	685 (100)

$$\chi^2(4) = 3.00, p > .05$$

<표IV-5>에 의하면 전체의 약 63.7%는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의 내용이 교과 지식형 질문이 아니라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을 포함하면 긍정평가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이 교과지식형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소수의 지원자(9.7%)들은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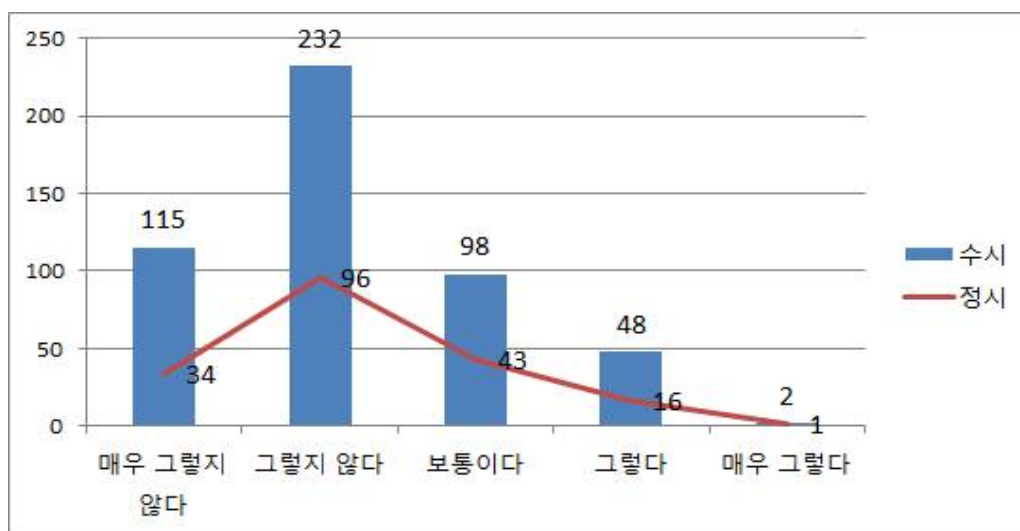


그림 IV-5.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의 성별 집단 별로 면접고사 질문에 교과지식형 질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6>과 같다.

표IV-6.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58 (22.0)	122 (46.2)	53 (20.1)	30 (11.4)	1 (0.4)	264 (38.5)
여	91 (21.6)	206 (48.9)	88 (20.9)	34 (8.1)	2 (0.5)	521 (61.5)
전체	149 (21.8)	328 (41.9)	141 (20.6)	64 (9.3)	3 (0.4)	685 (100)

$$\chi^2 (4) = 2.22, p > .05$$

<표IV-6>에 의하면  $\chi^2 (4) = 2.22$ 로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전체의 반응 경향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IV-5>의 결과에서 제시된 긍정반응이 80%를 상회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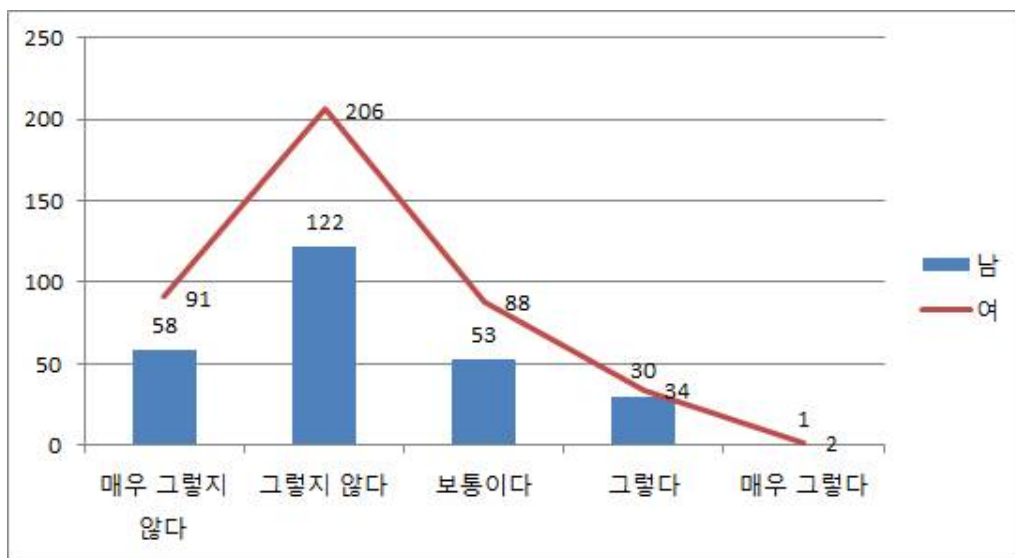


그림 IV-6.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



### 3. 질문 영역에 대한 결과 분석

- 전형 유형 및 요소, 인재상과 결부된 질문(복수응답)

이 설문은 “3. 우리 대학 면접고사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①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② 인성, 적성, ③ 교직(기초) 소양, ④ 시사, 상식, ⑤ 교과풀이, ⑥ 전문지식(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와 같다. 이를 통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의 범주 내에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걸맞은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수시 면접 전형(학생부 종합)의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중심의 면접 전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인재상에 맞는 교직 적인성, 교직 소양 등에 중점을 두고 면접 전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질문 영역에 대한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한 수시와 정시 학생의 면접고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Ⅳ-7>과 같다.

표Ⅳ-7.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고사의 영역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인성, 적성	교직소양	시사, 상식	교과풀이	전문지식	전체
수시	395 (80.0)	81 (16.4)	17 (3.4)	0 (0)	0 (0)	1 (0.2)	494 (72.2)
정시	0 (0)	55 (28.9)	33 (17.4)	101 (53.2)	1 (0.5)	0 (0)	190 (27.7)
전체	395 (59.7)	136 (19.9)	50 (9.3)	101 (14.8)	1 (0.1)	1 (0.1)	684 (100)

$$\chi^2(4) = 464.79, p < .01$$

<표Ⅳ-7>에 의하면 수시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80%로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성과 적성이 약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와 상식이나 교과풀이형 질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시의 경우 시사와 상식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성과 적성(28.9%), 교직소양(1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한( $p < .01$ )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 대학 면접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을 잘 따르고 있으며 정시에서는 시사, 인성과 적성을 중심으로 한 면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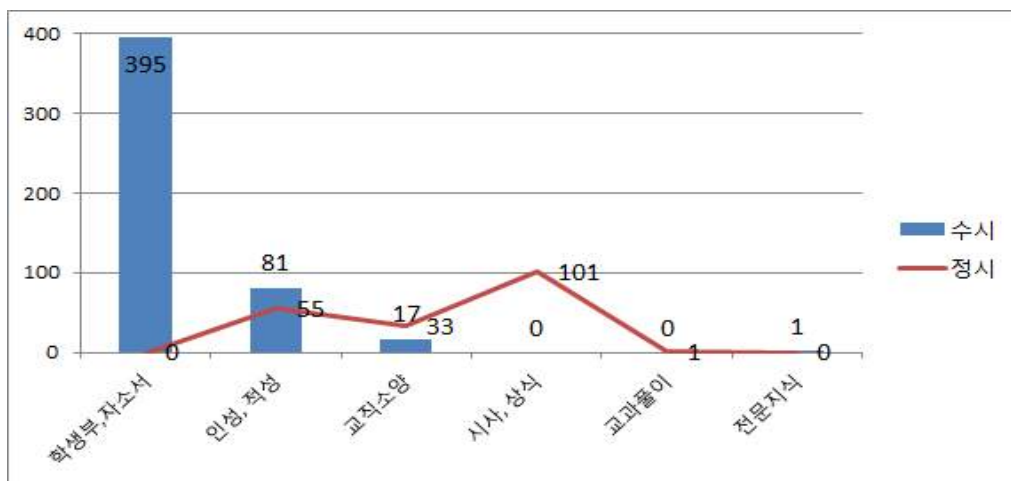


그림 Ⅳ-7.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의 성별 집단 간 면접고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8>과 같다.

<표IV-8>에 의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인성, 적성과 교직소양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p<.01$ )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8.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인성, 적성	교직소양	시사, 상식	교과풀이	전문지식	전체
남	129 (48.9)	65 (24.1)	28 (10.6)	41 (15.5)	1 (0.4)	0 (0)	264 (38.6)
여	266 (63.3)	71 (16.9)	22 (5.2)	60 (14.3)	0 (0)	1 (0.2)	420 (61.4)
전체	395 (59.7)	136 (19.9)	50 (9.3)	101 (14.8)	1 (0.1)	1 (0.1)	684 (100)

$$\chi^2(4) = 19.51, p<.01$$

이는 지원자의 성별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시와 정시의 지원자에 있어서 성별 비율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시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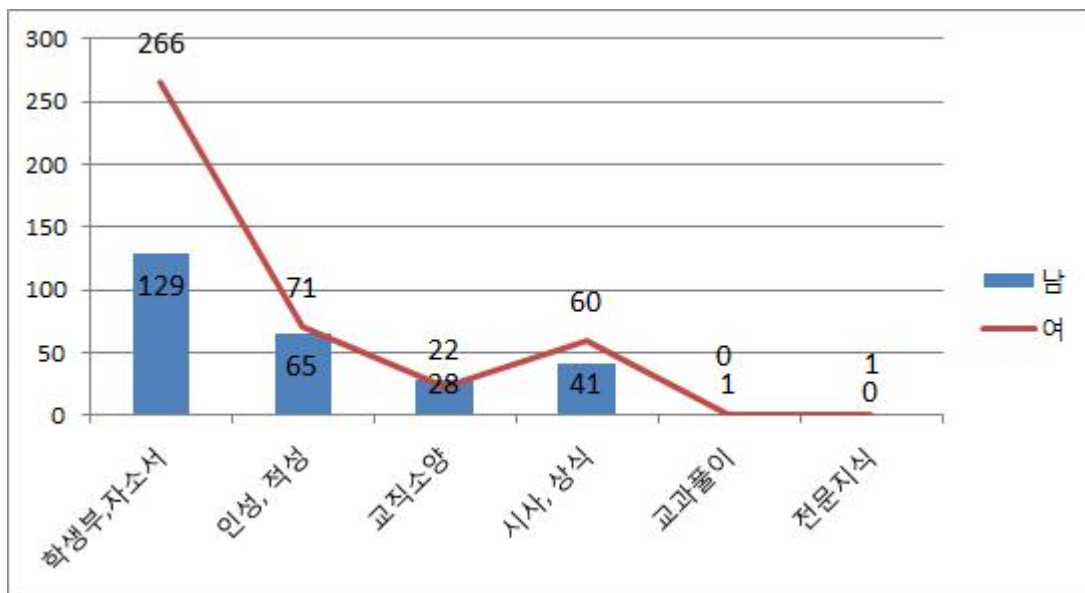


그림 IV-8.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면접고사 영역에 대한 평가

#### 4.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 결과 분석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4.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질문(내용)이 고교재학 중 배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수시와 정시 학생의 면접고사의 내용이 고교교과내용과 연계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256 (51.7)	197 (39.8)	32 (6.5)	8 (1.6)	2 (0.4)	495 (72.4)
정시	38 (20.1)	93 (49.2)	44 (23.3)	12 (6.3)	2 (1.1)	189 (37.6)
전체	294 (43.0)	290 (42.4)	76 (11.1)	20 (2.9)	4 (0.6)	684 (100)

$$\chi^2(4) = 80.94, p < .01$$

<표IV-9>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가 고교교과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지원자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는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거의 모든 지원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로는 수시지원자가 정시지원자보다는 유의하게( $P < .01$ ) 높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시지원자가 느끼는 면접의 내용과 고교교육내용의 연계성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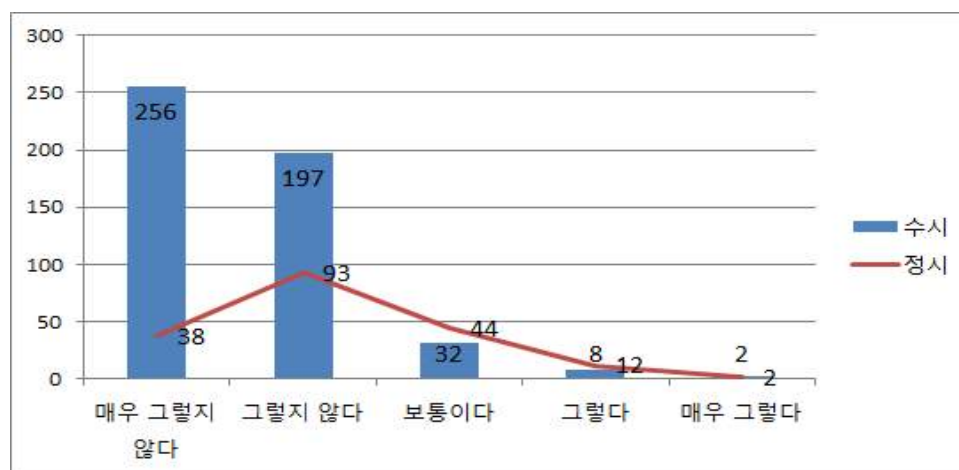


그림 IV-9.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우리 대학에 지원한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면접고사의 내용이 고교교과내용과 연계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10>과 같다.

표IV-10.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113 (42.8)	111 (42.0)	33 (12.5)	6 (2.3)	1 (0.4)	1264 (38.6)
정시	181 (43.1)	179 (42.6)	43 (10.2)	14 (3.3)	3 (0.7)	420 (61.4)
전체	294 (43.0)	290 (42.4)	76 (11.1)	20 (2.9)	4 (0.6)	684 (100)

$$\chi^2(4) = 1.69, p > .05$$

<표IV-10>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면접 고사의 내용이 고교교과내용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IV-9>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성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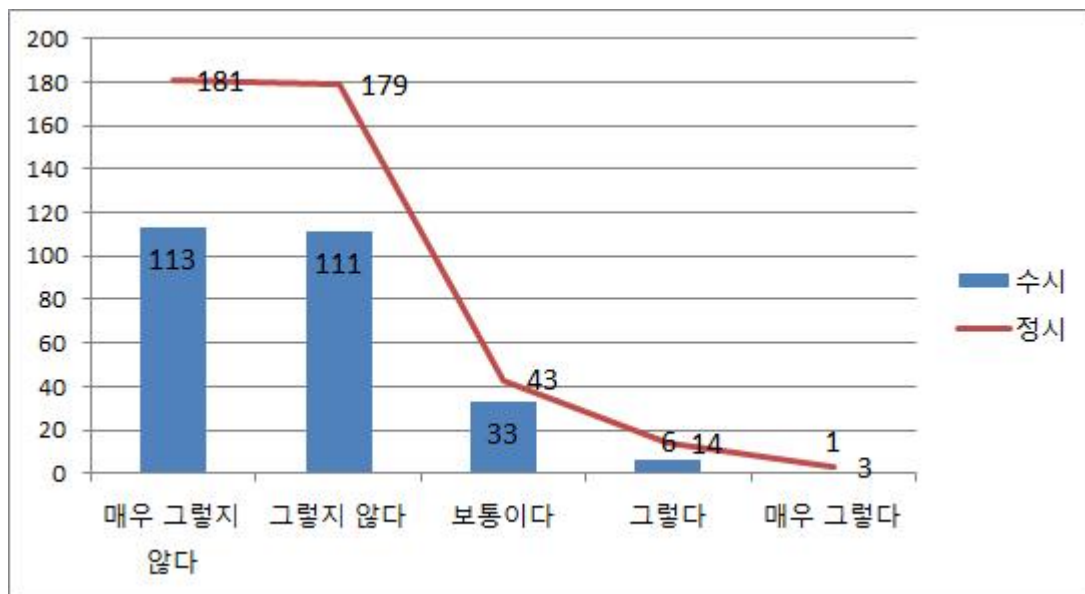


그림 IV-10.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

## 5.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 결과 분석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5.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에 대한 응답으로 수험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에서 지원자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지원자와 정시지원자를 비교한 결과는 <표Ⅳ-11>과 같다.

<표Ⅳ-11>에 의하면 우리 대학에서 실시된 면접고사에서 지원자 스스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경우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하기 ‘어려웠다’의 경우도 2%로 98%의 학생들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Ⅳ-1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0 (0)	8 (1.6)	73 (14.7)	265 (53.5)	149 (30.1)	495 (72.3)
정시	0 (0)	6 (3.2)	46 (24.2)	117 (61.6)	21 (11.1)	190 (27.7)
전체	0 (0)	14 (2.0)	119 (17.4)	382 (55.8)	170 (24.8)	685 (100)

$$\chi^2(4) = 30.34, p < .01$$

수시와 정시 지원자를 비교한 결과 수시지원자의 긍정평가가 정시지원자의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p < .01$ )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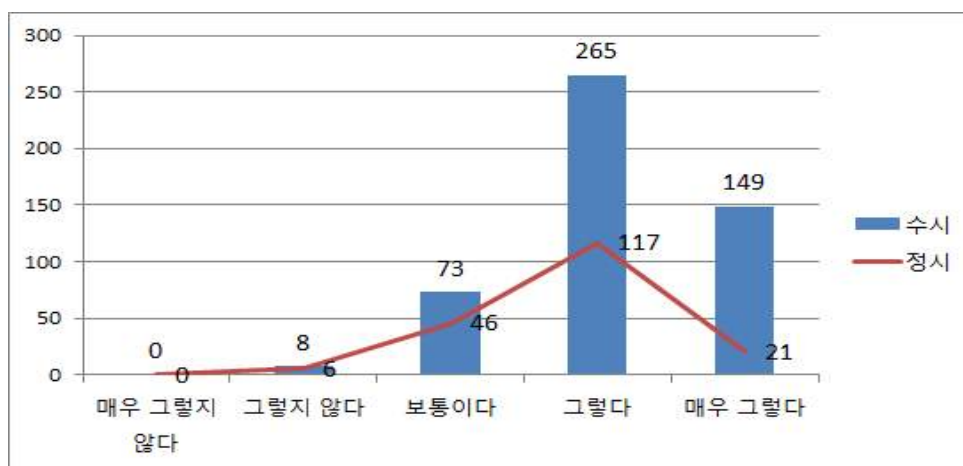


그림 IV-11.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에서 지원자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원자의 성별 집단 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IV-12>와 같다.

표IV-12.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0 (0)	4 (1.5)	45 (17.0)	157 (59.5)	58 (22.0)	264 (38.5)
여	0 (0)	10 (2.4)	74 (17.6)	225 (53.4)	112 (26.6)	421 (61.5)
전체	0 (0)	14 (2.0)	119 (17.4)	382 (55.8)	170 (24.8)	685 (100)

$$\chi^2(4) = 3.07, p > .05$$

<표IV-12>에 의하면 지원자의 성별 집단 간에는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자의 성별 간에는 면접고사를 스스로 대처해 가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우리 대학에서 제시된 면접 문항이 지원자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처 능력에는 성별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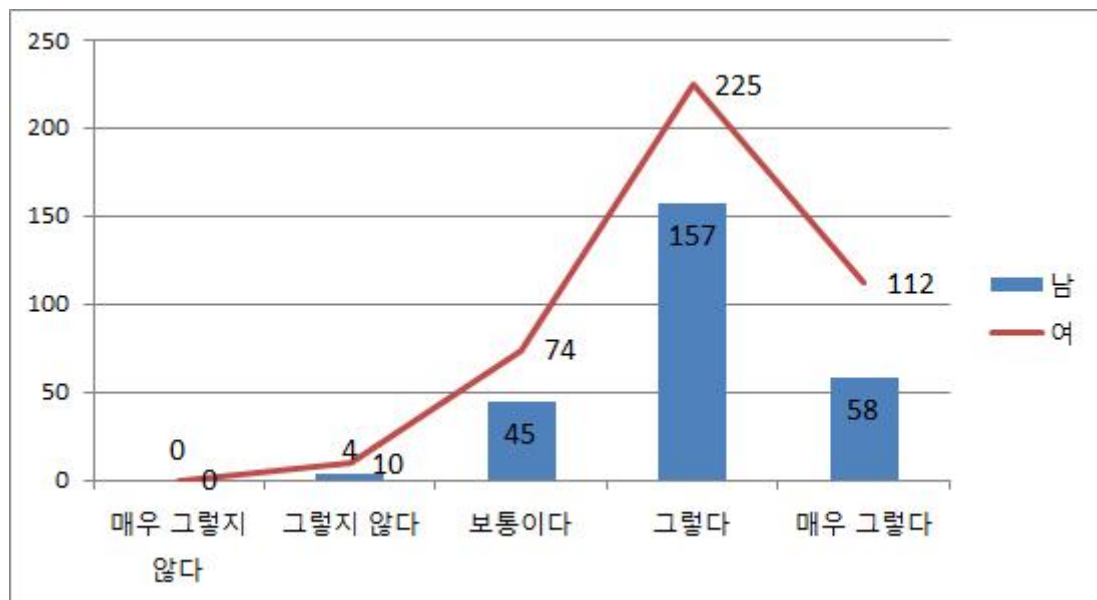


그림 IV-12. 성별에 따른 자기주도적 대처 가능성 여부 평가

## 6.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결과 분석

### 가.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6. 면접고사를 치른 수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학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본 설문을 종합하는 것으로 결론에 해당된다. 즉, 수험생들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의 충동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이고 충실한 고교 교육만으로 면접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형의 난이도나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를 치른 지원자가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시지원자와 정시지원자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Ⅳ-13>과 같다.

표Ⅳ-13.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시	127 (25.7)	166 (33.5)	129 (26.1)	64 (12.9)	9 (1.8)	495 (72.3)
정시	29 (15.3)	78 (41.1)	52 (27.4)	26 (13.7)	5 (2.6)	190 (27.7)
전체	156 (22.8)	244 (35.6)	181 (26.4)	90 (13.1)	14 (2.0)	685 (100)

$$\chi^2(4) = 9.28, p > .05$$

<표Ⅳ-13>에 의하면 우리 대학에서 실시된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수시와 정시 지원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85% 정도의 지원자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15% 정도의 지원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시와 정시를 구분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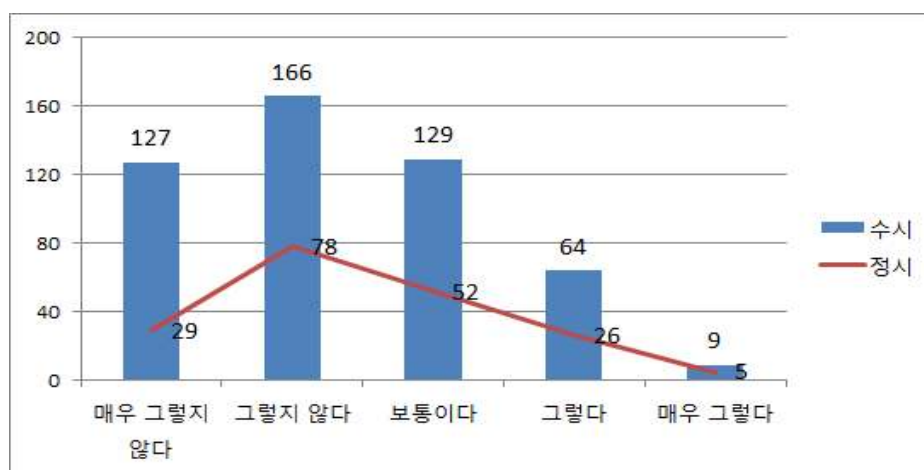


그림 IV-13. 수시와 정시 지원자의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나.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를 치른 지원자가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원자의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Ⅳ-14>와 같다.

표Ⅳ-14.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인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73 (27.7)	103 (39.0)	58 (22.0)	21 (8.0)	0 (0)	264 (38.5)
여	83 (19.7)	141 (33.5)	123 (29.2)	69 (16.4)	5 (1.2)	421 (61.5)
전체	156 (22.8)	244 (35.6)	181 (26.4)	90 (13.1)	14 (2.0)	685 (100)

$$\chi^2(4) = 21.81, p < .01$$

<표Ⅳ-14>에 의하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학생들(82.4%)은 선행학습에 기반을 둔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7.6%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8%만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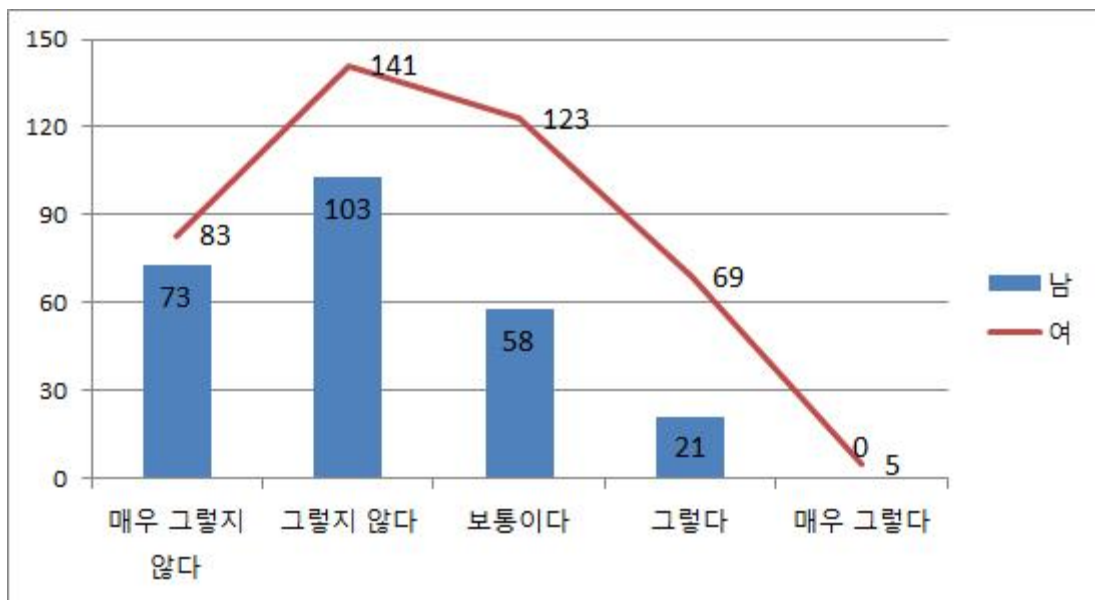


그림 IV-14.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

## 7. 분석 결과의 종합 : 최근 3년간의 추이와 삼각 검토

### 가. 분석 결과의 종합

설문을 통해 선행학습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항목은 6개이다. 응답의 결과를 표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전체의 약 47.9%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고사가 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약 43%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통 이상이 9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의 약 63.7%는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의 내용이 교과지식형 질문이 아니라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을 포함하면 긍정평가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질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수시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80%가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성과 적성이 약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와 상식이나 교과풀이형 질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시의 경우 시사와 상식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성과 적성(28.9%), 교직소양(1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한( $p<.01$ ) 차이를 보였다.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가 고교교과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지원자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스스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경우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하기 ‘어려웠다’의 경우도 2%로 98%의 학생들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원자는 58.4%이고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누적 평균은 84.8%로 지원자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15% 정도의 지원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비교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학생들(82.4%)은 선행학습에 기반을 둔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7.6%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8%만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2개가 있는데, 먼저 질문 영역과 관련된 수시와 정시 간의 응답 차이이다. 다음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5.1% 내에서 남녀 학생간의 비율 차이이다. 전자는 전형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입시 전형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정당성을 보장한다. 후자의 경우는 다음 절인 ‘최근 3년간의 추이 : 3개 문항의 교차 검토’에서 그 의미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중, 긍정 응답이 47.9%~80.6%의 범주에 속하고 보통 이상이 84%~98%의 범주 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대학의 면접 전형은 선행학습을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나. 최근 3년간의 추이 : 3개 문항의 교차 검토

면접전형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찾아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면접 질문 자체에 야기되는 것으로, 문항 구성의 난이도가 높아 질문에 대한 별도의 학습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면접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탈하여 별도의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높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복합적 사고력과 순발력을 요구함으로써 면접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분석한 6개의 문항 중에서 1, 4, 6번 설문의 최근 3년간의 추이와 각 항목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추적해 보기로 한다.

### 1) 면접 질문 난이도에 대한 응답의 양상

지원자가 면접고사의 난이도를 체감하고 이에 응답한 최근 3년간의 추이는 <표 IV-15>와 같다.

표IV-15. 2017/2018/2019학년도 : 면접 질문 난이도

%

구분	수시			정시			전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매우 그렇지 않다	1.0	1.1	.4	21.2	-	.5	7.2	.8	.4
그렇지 않다	7.7	6.8	7.1	57.5	6.1	11.6	23.0	6.6	8.3
보통이다	40.7	38.2	39.4	17.0	48.4	52.7	33.4	41.0	43.4
그렇다	42.2	44.8	45.7	4.2	39.0	31.1	30.5	43.1	41.6
매우 그렇다	8.4	9.2	7.5	-	6.6	3.2	5.8	8.4	6.3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질문 수준을 묻는, “1.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답하기 쉬웠나요?”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난이도를 측정한 결과, “그렇다” 이상의 누적 평균이 2017학년도 36.3%, 2018학년도 51.5%, 2019학년도 47.9%로 나타났고, 보통 이상의 누적 평균은 2017학년도 69.7%, 2018학년도 92.5%, 2019학년도 91.3%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첫째, 면접 질문 자체에 야기되는 것으로, 문항 구성의 난이도가 높아 질문에 대한 별도의 학습을 요구하는 경우이다.”와 같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

지원자가 면접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이탈 유무에 대해 응답한 최근 3년간의 추이는 <표IV-16>와 같다.

표IV-16. 2017/2018/2019학년도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

%

구분	수시			정시			전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매우 그렇지 않다	45.6	50.6	42.8	33.5	32.9	43.1	41.9	45.6	43.0
그렇지 않다	42.9	40.9	42.0	50.0	47.4	42.6	45.1	42.7	42.4
보통이다	8.5	7.0	12.5	13.2	16.9	10.2	10.0	9.8	11.1
그렇다	2.7	1.5	2.3	3.3	1.9	3.3	2.9	1.6	2.9
매우 그렇다	.2	-	.4	-	.9	.7	.1	.3	.6

우리 대학 면접고사에서 “4.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질문(내용)들이 고교재학 중 배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를 측정한 결과, “그렇지 않다” 이상의 누적 평균이 2017학년도 87%, 2018학년도 88.3%, 2019학년도 85.4%로 나타났고, 보통 이상의 누적 평균은 2017학년도 97%, 2018학년도 98.1%, 2019학년도 96.5%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면접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탈하여 별도의 선행학습 성격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와 같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지원자가 면접고사를 치르고 선행학습의 필요성 여부에 응답한 최근 3년간의 추이는 <표IV-17>와 같다.

표IV-17. 2017/2018/2019학년도 :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

구분	수시			정시			전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매우 그렇지 않다	28.0	28.4	25.7	25.0	25.8	15.3	27.1	27.7	22.8
그렇지 않다	42.6	42.0	33.5	39.2	45.5	41.1	41.5	43.0	35.6
보통이다	21.5	19.8	26.1	21.2	19.2	27.4	21.4	19.7	26.4
그렇다	7.5	8.8	12.9	14.6	8.5	13.7	9.7	8.7	13.1
매우 그렇다	.4	.9	1.8	-	-	2.6	.3	.9	2.0

우리 대학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2017학년도 수시면접에서 70.6%, 정시면접에서 64.2%이었으며, 2018학년도의 경우 수시 및 정시면접에서 각각 70.4%, 71.3%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2019학년도 수시 및 정시면접에서는 각각 59.2%, 56.4%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다”에 응답한 ‘보통 이상’의 누적 평균은 2017학년도 90%, 2018학년도 90.4%, 2019학년도 8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는 2019학년도에는 수시 14.7%, 정시 16.3%, 전체 평균 15.1%로 나타났다. 이는 수시와 정시에서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동일하게 높아진 것으로 유의 수준에 해당한다.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 10%, 2018학년도 9.6%, 2019학년도 15.1%로 나타나 2019학년도는 예년에 비해 5% 정도 증가하였다.

#### 4)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일정 수 상존하거나 증가한 까닭은?

앞에서 정리한 바, 면접전형과 관련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 질문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②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탈하여 상위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③ 평가기준이 높거나 면접 상황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의 추이에서 “면접 질문 난이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에 대한 평균은 2018년과 2019년이 비슷한 평균을 보이면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영향 관계에 있는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2017학년도 10%, 2018학년도 9.6%, 2019학년도 15.1%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질문의 난이도가 높거나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을 이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 구성 면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일정 수 상존하거나 증가한 까닭은, “③ 평가기준이 높거나 면접 상황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질문의 내용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복합적 사고력과 순발력을 요구함으로써 면접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15.1%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5% 정도 증가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블라인드 면접 도입’,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면접장에서 긴장과 적응 문제, 상황 및 환경적 부적응 요인
- ② ‘실수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하여, 질문에 즉시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면접 상황에서 순발력, 문제해결력, 아이디어구성 능력 등의 언어적 표현력에 대한 자각
- ③ ‘자기점검 노력’과 관련하여, 상위권 수험생들 간에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상향시키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①의 요인은 환경적 요소에서 수험생의 긴장 완화나 대기실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의 경우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의 응답에서 특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82.4%)은 선행학습에 기반을 둔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7.6%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8%만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그 민감도에서 여학생이 2배에 달한다. 이는 경험적인 사실에 비추어볼 때, 면접에 임하는 여학생들의 언어적 표현력이 남학생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 심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발고사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②의 요인에 대한 처방이다. 면접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문제해결력을 비롯하여 교직 적·인성을 평가한다. 학생의 언어적 순발력이나 표현력은 그 자체로 교직 적·인성을 평가하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적 표현력이나 순발력이 뛰어난 수험생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숙고형이거나 내향적인 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언어적 임기응변이 뛰어난 학생이 교직 적·인성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접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미리 주고 숙고의 시간을 5분 정도 갖게 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이나 교직 적·인성 평가에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지금까지 앞에서 정리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2019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수시 및 정시 면접고사에 대한 선행학습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 분석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전체적인 경향성과 함께 수시와 정시, 그리고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이다. 이는 ① 수시와 정시가 입시 전형의 방식을 달리한다는 점과 ② 성별에 따른 최소 합격자 비율을 산정하는 전형 유형(교직적성우수자, 정시전형)을 둔다는 점에서 입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 질문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도입 설문으로 전체 면접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전체의 약 47.9%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고사가 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약 43%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통 이상이 9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8.7%에 불과함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가 선행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과지식형 질문 유무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의 약 63.7%는 우리 대학의 면접 질문의 내용이 교과지식형 질문이 아니라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을 포함하면 긍정평가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질문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수시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80%가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인성과 적성이 약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사와 상식이나 교과풀이형 질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시의 경우 시사와 상식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성과 적성(28.9%), 교직소양(1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한( $p<.01$ )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 대학 면접이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유형을 잘 따르고 있으며 정시에서는 시사, 인성과 적성을 중심으로 한 면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전형 유형에 따른 차이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고교 교육과정 이탈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가 고교교과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지원자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는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거의 모든 지원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별로는 수시지원자가 정시지원자보다는 유의하게( $P<.01$ ) 높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중점을 둔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수시지원자가 느끼는 면접의 내용과 고교교육내용의 연계성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평가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장양해야할 측면이다.

5) 자기주도적인 대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실시된 면접고사에서 지원자 스스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경우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하기 ‘어려웠다’의 경우도 2%로 98%의 학생들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 지원자를 비교한 결과 수시지원자의 긍정평가가 정시지원자의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시 전형이 정시 전형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6)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 평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원자는 58.4%이고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누적 평균은 84.8%로 지원자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반면 15% 정도의 지원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여학생들(82.4%)은 선행학습에 기반을 둔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7.6%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8%만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 영역과 관련된 수시와 정시 간의 응답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5.1% 내에서 남녀 학생간의 비율 차이이다. 전자는 전형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입시 전형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정당성을 보장한다. 주목할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일정 수 상존하거나 증가한 까닭은, “평가기준이 높거나 면접 상황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질문의 내용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복합적 사고력과 순발력을 요구함으로써 면접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숙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2배 수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험적인 사실로 면접에 임하는 여학생들의 언어적 표현력이 남학생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 심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발고사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중, 긍정 응답이 47.9%~80.6%의 범주에 속하고 보통 이상이 84%~98%의 범주 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대학의 면접 전형은 선행학습을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제언

우리 대학이 선행학습에 기반을 둔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부 서류전형 및 수시 및 정시 면접전형 등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광주교육대학교의 대학입시제도는 간소화를 지향해서 공교육의 체제를 존중하고 입학 관련 업무를 입학사정관제로 일원화하여 대입 전형 및 자유학기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선발 될 수 있도록 수시모집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일원화하여 선발하였다.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교사추천서, 최저학력 기준 등을 폐지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제시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 2) 면접의 문항을 수시에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정시에서는 공통 문항을 개발할 때 고교교사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준수 정도를 검증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필요성이나 공교육의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 3) 교무처장 밑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필요할 때 상시로 열어서 대학입시제도와 면접문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더 나가서 본교의 대입전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4) 정시 면접문항을 개발할 때,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함을 문항카드에 명시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한다. 출제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의 장학사들이 검토 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다.
- 5) 대입전형 전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사교육 \*\*\*\*’ 등의 두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발주하거나 결과보고서 작성 팀을 가동함으로써, 전형의 운영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여 대입 전형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 대학 입시전형이 관리되었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18학년도 수시 및 정시 면접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도출한 결론에 근거하여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8학년도 입시전형에서 제안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시·정시모집의 면접고사와 선행학습과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면접고사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서류기반으로 서류내용에 대한 확인과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학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시면접에서 서류에 나타난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면접고사의 결과는 정시에 비해 합격여부에 영향력이 높으므로 평가의 도구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세밀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문병찬 외, 2018 : 41) 201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위촉사정관 교육에 반영하였고 학생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항을 근거로 면접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원자의 응답에 나타난 질문 난이도가 1~3.4%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시 면접 전형의 타당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최근 3년 동안의 추이에서 ‘면접 질문 난이도’, ‘고교 교육과정 범위 이탈 유무’에 대한 평균은 2018년과 2019년이 비슷한 평균을 보이면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과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는 ‘선행학습 필요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2017학년도 10%, 2018학년도 9.6%, 2019학년도 15.1%로 증가하였다. 질문의 난이도가 높거나 출제 범위가 교육과정을 이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 구성 면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언어적 표현력이나 질문에 순발력 있게 답하는 문제해결력이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면접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문제해결력을 비롯하여 교직 적·인성을 평가한다. 학생의 언어적 순발력이나 표현력은 그 자체로 교직 적·인성을 평가하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적 표현력이나 순발력이 뛰어난 수험생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숙고형이거나 내향적인 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언어적 임기응변이 뛰어난 학생이 교직 적·인성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접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미리 주고 숙고의 시간을 3분 정도 갖게 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이나 교직 적·인성 평가에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4) ‘블라인드 면접 도입’,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면접장에서 긴장과 적응 문제, 상황 및 환경적 부적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설문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여 결과 분석에 포함시키고 수험장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2012),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전형 연구」, 2011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실(2013), 「2013년 대학의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보고서.
- 김정민·김정숙·김일혁(2014),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2), 안암교육학회, pp. 135-166.
- 김현철·윤유진(2011), 「선행학습 실태 및 학습 부담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 도승이·김성식·김현철·손수경(2012), 「사교육 의존도에 따른 학업우수 중학생의 특성분석-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0(4), 한국교육학회, pp. 185-200.
- 문병찬·김선구·정혜린·김다래(2018),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7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박현정·상경아·강주연(2008), 「사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평가연구》, 21(4), 한국교육평가학회, 107-127.
- 안상진(2013),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 선행학습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8-43.
- 오익수·노희정·조환채(2016),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5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이재덕·김도기·김정민·권순형·도승이·김지선(2016), 「학교 외부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및 해소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3), 한국교육행정학회, pp. 25-50.
- 이종태·김양분·이인효·윤초희·성기선·김미숙·허순영·김성식·조옥경(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수탁연구 CR2002-05), 한국교육개발원.
- 임성규(2011), 「대학 내신과 임용시험 성적의 상관관계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 임성규·김용조(2015),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2014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임성규·김정량·김인수·조환채(2013), 「대입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 연구」, 2014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임성규·선주원·신동광(2017), 「광주교육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요내용」, 2016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최도성·강효영·조환채(2012),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전형 연구」, 2011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과제보고서.
- 황윤한(2010a),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연구」, 2010년 광주교육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 황윤한(2010b), 「교육감추천입학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한국교원교육학회, pp. 165-189.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2), 「선행학습실태 전국조사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제5차 토론회 자료집.

김정민·김일혁·김정숙·김근화(2013), 「학교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현안보고 OR 2013-11), 한국교육개발원.

<기초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9.25.), 교과부-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2학년도 성취평가제 운영 매뉴얼-중학교용」.

교육부(201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통계청 보도자료(2014.2.26.), 2013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6.2.2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8.3.15.), 2007~2017 학교급 및 특성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교육·문화 > 교육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학교급 및 특성별 결과 > 학교급 및 특성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 부록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

(광주교육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관련)

교무과-3546 (2014.12.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전형(대학별고사) 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평가의 방법·절차·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교수, 채용), 입학담당자, 교사, 장학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입학본부장,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으로 하며, 내실 있는 평가와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적절히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평가에 관한사항
3. 대학별고사에 대한 분석·자문·설문 등
4. 자체 검토 및 평가
5.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방법)**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제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광주교육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및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운영은 입학부서에서 주관하고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절차)**

1.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 위원회 회의
3. 위원회 및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심의한 기본 계획을 입시관리위원회에  
서의결
4. 필요시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자료, 설문 조사 실시
5. 자체 연구(평가) 중간보고 및 검토
6. 자체연구(평가) 결과보고 및 위원회 최종 검토
7.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공개
8. 차년도 대입전형 계획 변경(필요시)
9.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10.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의가 있을시 재심 요청

#### **제7조(기타사항)**

위와 관련한 사항 중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  
고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4. 12. 9.부터 시행한다.



## 2.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지

본 설문은 대학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하여, 광주교육대학교 면접고사가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학습’이란 대학별 고사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거나 배우지 않은 것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및 광주교육대학교의 입학전형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4.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진

※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V 표를 해주세요.

1. 응답자의 출신 고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광역(특별)시	② 시	③ 읍·면	
2. 응답자의 고교 유형은?			
① 일반고(자사고, 자공고 포함)	② 특성화고	③ 특목고(외고, 과학고 등)	④ 기타(검정고시, 대안고 등)
3. 응답자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4. 응답자의 지원 전형은?			
① 교직적성우수자	② 전라남도학교장추천	③ 광주·전남 인재	④ 특별전형(그 외 전형)
※ 특별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음은 면접(대학별고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V 표를 해주세요.

1.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답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면접고사 질문(내용) 중 교과지식형(풀이형) 질문이 있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우리 대학 면접고사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② 인성, 적성	③ 교직(기초) 소양		
④ 시사, 상식	⑤ 교과풀이	⑥ 전문지식		
4.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질문(내용)이 고교재학 중 배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우리 대학 면접고사의 내용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면접고사를 치른 수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학 면접고사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우리 대학 면접이 선행학습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3. 2019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예시

수험 번호	성명	면접 내용
1111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로희망이 ○○○에서 초등교사로 바뀌게 된 계기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가장 초등교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li> <li>2.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소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된다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li> <li>3. 현재 초등교육 현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li> <li>4. ○학년 자율 활동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글을 썼던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다문화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시 작성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세요.</li> <li>5. 모범학생으로 표창장을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세요. 학교생활 중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li> </ol>
1112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준 독서활동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해보세요.</li> <li>2.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li> <li>3.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를 확인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 이러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li> <li>4. 학생자치법정 위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을 배웠습니까?</li> <li>5. 예비 교사로서 초등학생들에게 재난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세요.</li> </ol>
1113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이 초등교사로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li> <li>2.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반장으로서 시끄러운 반의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li> <li>3. 예비 교사로서 체육수업(몸으로 하는 수업, 운동 등)에 참여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고 싶은가?</li> <li>4. 통일관련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자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고 통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li> <li>5. 지원자의 교직에 대한 적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보세요.</li> </ol>

#### 4.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공통 문항

####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공통 문항

##### 문항 1)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는 등, 통일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을 한다면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말해 보시오.

##### ☑️ 답안 예시)

##### <통일교육 중점내용>

-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보편적 가치로서의 통일 의식 함양
- 남북한 문화 및 경제 교류 방안

-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한 언어적 동질성 회복
- 한국사 교육의 강화를 통한 동질성 회복
- 상호 이해와 더불어 영토에 대한 관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 방안 등

##### 문항 2)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 ☑️ 답안 예시)

##### <발생원인>

-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부족
- 산림훼손에 따른 사막화
-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 산업화에 따른 자동차 및 산업시설의 증가
-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와 공장 매연, 배기가스
-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 등

##### <해결대책>

##### ① 개인적 측면

- 대중교통의 이용,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
- 친환경 기업 제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 등

##### ② 사회적 측면

- 인접국 중국 등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협력
- 친환경 차량의 개발과 정부의 지원 확대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소비 패턴의 조성
- 환경교육의 강화
- 근검절약의 강조와 소비중심 사회에서 탈피 노력 등

##### 문항 3)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지구촌 교류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 ☑️ 답안 예시)

#####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능력>

- 공동체적 연대의식
- 협력과 소통

- 도덕적 가치, 타인에 대한 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
- 적법성, 정당성, 공정성, 평등성, 공정성
- 공정한 대우, 타인 존중, 상호 인정 등

##### 문항 4)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 ☑️ 답안 예시)

##### <원인>

- 생명 경시풍조, 생명을 소비품으로 취급
-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지식 부족
- 공중도덕의 미확립, 정책적 홍보 부족 등

##### <해결책>

-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
- 반려동물 관련 법의 정비
- 반려동물 사이트 등을 통해 양육 지식 습득
- 반려동물과 공감 능력이나 배려 정신 확산 등

## 5.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문항카드

### 2019학년도 선행학습 관련 출제문항(1번)카드 작성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과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통일 교육, 윤리적 가치, 국가 공동체, 책임감
예상소요시간	5분 이내	

#### 2. 문항 및 자료(※ 질문내용)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국제 스포츠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는 등, 통일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을 한다면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말해 보시오.

#### 3. 출제 의도

- 문항 1)을 출제한 의도는 국가 구성원이자 역사적 주체로서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보편적 가치인 통일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와 동기를 함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출제 근거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음에 근거를 둔다. “우리 사회, 민족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 민족의 평화, 지구촌 공존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탐구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에서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b>고등학교 교육 목표</b>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b>&lt;생활과 윤리&gt; - 고등학교</b>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2]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 통일과 한반도 평화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을 지향하는 개인적,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으며 통일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문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 문제 등이 있다.	2. 민족 통합의 윤리 : 통일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①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②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
			○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 윤리적 실천 방안 제안하기

##### 나) 자료 출처 : 해당 없음

**5. 문항해설 :** “우리 사회의 통합, 민족의 평화, 지구촌 공존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탐구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민주 시민 교육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때 통일에 대한 높은 동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교사로서 통일에 대한 실천적 방법에 관심을 둬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교육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통일에 관한 실천적 지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과 문제 해결력을 판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6. 채점기준 :**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별지 채점 기준 사용함.

**7. 예시답안 :** 출제문항의 예시답안으로 대체

## 2019학년도 선행학습 관련 출제문항(2번)카드 작성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문항번호	과학계열 / 문항 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과학과 교육과정 - <과학탐구실험>, <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환경오염, 온실 효과, 과학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
예상소요시간	5분 이내	

### 2. 문항 및 자료(\*질문내용)

**미세먼지로 인해 바깥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 보시오.**

### 3. 출제 의도

- 문항 2)의 출제 의도는 과학과 교육의 성격 규정에 나온 바,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리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학습 능력과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 그리고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 출제 근거는 고등학교 교육 목표 4항을 비롯하여, 과학 계열의 <과학탐구실험>에서의 자연 현상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상호 연관적으로 인식하고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윤리의 의식의 함양에 관련되어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 <과학탐구실험>
관련 성취기준	<p><b>고등학교 교육 목표</b></p> <p>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p> <p><b>과학과 교육 목표</b></p> <p>나.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p> <p>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p> <p><b>&lt;과학탐구실험&gt; 교과 목표</b></p> <p>라.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p> <p>(2) 생활 속의 과학 탐구</p> <p>[10과탐02-07]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 나) 자료 출처 : 해당 없음

### 5. 문항해설 :

현재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오염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오염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공조 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수준에서 시민의식에 호소함으로써 상황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학습의 결과를 현실생활에 활용하고 이를 실천윤리로 확장할 수 있는가를 통해 미래형 교사로서의 적성을 판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6. 채점기준 :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별지 채점 기준 사용함.

### 7. 예시답안 : 출제문항의 예시답안으로 대체함.

## 2019학년도 선행학습 관련 출제문항(3번)카드 작성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3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과 교육과정 - 고등학교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식, 상호존중, 시민성 발휘
예상소요시간	5분 이내	

### 2. 문항 및 자료(\*질문내용)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지구촌 교류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 3. 출제 의도

- 문항 3)의 출제 의도는 세계화, 정보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존중의 태도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데 개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두었다. 사회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 그리고 후세대에게 그러한 사회구현을 위한 태도와 역량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p><b>고등학교 교육 목표</b></p> <p>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p> <p><b>사회과 교육 목표</b></p> <p>바.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 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p> <p><b>&lt;통합사회&gt; 교과 목표</b></p> <p>나. 인간과 자신의 삶, 이를 둘러싼 다양한 공간, 그리고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과거의 경험, 사실 자료와 다양한 가치 등을 고려하면서 탐구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기른다.</p> <p>(8) 세계화와 평화</p> <p>[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p> <p>[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p>

나) 자료 출처 : 해당 없음

### 5. 문항해설 :

세계화, 정보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핵심 질문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사회가 가져온 사회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세계시민 의식이 필요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6. 채점기준 :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별지 채점 기준 사용함.

7. 예시답안 : 출제문항의 예시답안으로 대체함.

## 2019학년도 선행학습 관련 출제문항(4번)카드 작성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일반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3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과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생명과 윤리, 상호 존중, 윤리적 소통, 갈등 양상
예상소요시간	5분 이내	

### 2. 문항 및 자료(\*질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 3. 출제 의도

- 문항 3)의 출제 의도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삶을 침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위안의 도구가 아닌 생명 존중 사상을 함양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로서의 품성과 판단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출제 근거는 자기 위안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지성에 바탕을 둔 윤리적 소통을 통해 시민 의식을 추구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에 관련되어 있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에서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p><b>고등학교 교육 목표</b></p> <p>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p> <p><b>&lt;생활과 윤리&gt; - 고등학교</b></p> <p>(2) 생명과 윤리</p> <p>[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p> <p>(6) 평화와 공존의 윤리</p> <p>[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p>

#### 나) 자료 출처 : 해당 없음

**5. 문항해설 :** 공동체 속에서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젊은이들의 단독세대로 인한 사회적 단절 현상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동체 내의 사회적 연대나 개인의 관계 능력의 성숙을 통한 사회적 삶을 추구하는 등의 바람직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개인 윤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6. 채점기준 :**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별지 채점 기준 사용함.

**7. 예시답안 :** 출제문항의 예시답안으로 대체함.

6. 2019학년도 정시 면접 문항 검토 의견표

2019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정시 면접문항 검토의견

일 시		성 명	
소속/직위			
출제문항에 대한 검토 의견			
<p><input type="checkbox"/> 선행학습 위반에 대한 출제 범위 및 내용 :</p> <p><input type="checkbox"/> 문항에 대한 수정 내용 :</p> <p><input type="checkbox"/> 문항에 대한 지원자 대처 가능 정도 :</p> <p><input type="checkbox"/> 문항에 대한 적절성 :</p> <p><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p>			

검토위원 : (인)



7.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일반전형) 평가표

2019학년도 정시 면접고사 평가표(일반전형)

일 시	2019. 1. 19.(토)	가번호		1
-----	-----------------	-----	--	---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표시
문제 해결 능력 (50점)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인성 및 교직적성 (25점)	적성 사회성 가치관 도덕성 등	우수	
		보통	
		미흡	
교양 및 응모 (25점)	교양 응모 태도 등	우수	
		보통	
		미흡	
총점	100점	점수 합계	_____ 점
※ 기타 및 특이사항			

평 가 위 원	(인)
---------	-----